Java의 유일한 3항 연산자 -> ( 조건 ) ? a : b -> 조건이 참이면 앞에 a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b에 해당이 된다.

Random r = new Random(); -> 자바에는 4천개 정도의 부품(class)가 있는데 그 중에서 random이라는 부품을 복사해서 메모리로 가져온 것이고 자료형 지정하는 것처럼 random이라는 type의 부품을 r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고 선언하는 것. 이후 random 이라는 부품의 세부기능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을 찍어 세부 기능에 접근한다.

java에서는 while문의 조건부분이 boolean형으로써 ture or false로 작동하기에 만약에 무한 loop 만들고 싶다면 true 써주면 된다.

ctrl + shift + f : 이걸 입력하면 전체 코드들이 쭉 정리가 된다. 들여쓰기나 띄어쓰기가 정리가 되는 것!!!

비교 연산자는 기본타입만 사용 가능하다.

기본 타입은 변수 하나당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배열 같은 경우는 기본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reference type)이라고 한다.

System.out.println(arr); ->arr을 배열로 선언하였다면 만약 arr을 출력하면 배열 중 첫 번째 값 저장된 주소 값이 나온다.

기본 타입은 변수에 데이터(값)이 들어가고 참조 타입은 주소 값이 들어간다. 주소 값을 참조해 안에 저장된 값에 접근하는 것이기에 참조 타입이라 하는 것.

자바는 램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한다.

String도 기본타입이 아니기에 원래는 주소 값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워낙 자주 사용하기에 변수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설계했다. But string도 결국엔 기본 타입이 아니기에 비교 연산자 사용이 안되고 두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점을 이용해 string이라는 class의 equals()라는 기능을 사용한다!!!.

배열의 index는 0부터 사용된다.

자바에서 배열 선언시 c언어와 다르게 필요한 크기를 미리 쓰지 않고 비워 놓는다.

Int i[5] -> i.length ->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

int num[] = new int[3]; -> int 값 3개를 복사해서 배열에 넣어줘 라는 뜻! 따라서 값을 배열 선언과 동시에 넣는 것이 아닌 나중에 넣고 싶으면 저렇게 선언 시에 new를 이용해 int 값(0) 복사해서 넣어줘서 빈 공간을 먼저 만들어준다. 즉, 배열의 초기값을 자동으로 0으로 맞춰주는 것. Int면 0으로 맞춰주고 double이면 0.0으로 맞춰준다.

배열 만들어준 다음에 그 배열 바로 밑에서 for쓰고 ctrl+스페이스 해주면 자동으로 for문을 배열의 길이까지 반복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걸 이용하면 for문 빠르게 만들 수 있다.

Ctrl + 슬러쉬 눌러주면 자동으로 주석으로 처리해준다.

변수를 생성하면 초기화 전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값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초기화를 통해야지만 변수 내 값을 출력할 수 있다. 초기화 하기 전에는 값을 출력할 수 없다.